



즉시 배포용: 2020년 7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라구아디아 터미널 B의 신규 콘코스 및 게이트가 개장하며 공항 완전 재개발 계획의 하계 진전을 발표

6월 신규 도착 및 출발장 개장에 이어 신규 터미널 B 콘코스 1단계 개장

승객 40 퍼센트 이상이 현재 완전히 새로운 LGA의 신규 게이트에서 도착 및 출발

신규 콘코스에 7개의 신규 게이트가 오픈하여 아메리칸 항공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커브사이드에서 게이트까지 연결되는 21세기형 여행 경험 확대

공항 재개발 프로젝트 기간 전체에 걸쳐 도로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도로 작업의 약 75 퍼센트 완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80억 달러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 LGA) 터미널 B(Terminal B)에 밝은 분위기의 두 번째 콘코스와 신규 게이트 7개가 개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 5일부터 새로운 웨스턴 콘코스의 일곱 개 신규 게이트를 우선 사용할 예정이며, 라구아디아 터미널 B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여행 경험을 더 많은 이용객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신규 콘코스에는 실내 공원, 터치리스 화장실, 뉴욕을 느낄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편의시설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이정표가 될 이번 개장은 지난 달 문을 연 850,000 평방피트 규모의 새로운 도착장 및 출국장 홀의 개장에 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신규 컨세션, 여행자 편의시설,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품을 비롯해 코로나19 전염병 기간 중 및 이후 승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구아디아 공항 터미널 B의 이번 신규 콘코스 개장은 이번 여름에 달성한 두 가지 쾌거를 보여주며, 21세기형 운송 시설로의 완전한 전환에 우리가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구아디아 공항은 25년 만에 미국에 만들어지는 신규 공항이며, 우리는 과거 시설을 운영하면서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방문하는 여행자들은 세계적 수준의 경험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현대화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뉴욕뉴저지항만청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의 Rick Cotton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터미널 B의 웨스턴 콘코스에 신규 게이트 7개의 개장은 지난 18개월 간 이루어진 진전의 일환이며, 우리는 라구아디아 공항 완전

재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비전과 리더십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라구아디아 공항(A Whole New LaGuardia Airport) 건설은 올 여름 새로운 도착장 및 출국장 개장, 신규 콘코스 및 게이트의 조기 개통, 그리고 교통량 감축에 따른 전체 도로 작업의 약 75 퍼센트 완공 등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뉴저지항만청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Rick Cotton 상임이사, 라구아디아 게이트웨이 파트너스(LaGuardia Gateway Partners), LGA의 터미널 B 재개발 및 운영 민간 컨소시엄 Stewart Steeves 최고경영자, Jeffrion Aubry 하원의원, Sharon Lee 퀸즈 자치구 대표 대행은 예정보다 한 달 앞서 열린 개장식에 참가해 210,000 평방피트 규모의 신규 콘코스 1구역 개장을 알렸습니다. 2021년 말에 2 단계 및 최종 단계가 완공되면, 웨스턴 콘코스에 총 17개의 새로운 게이트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신규 콘코스는 주로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이 이용하며, 향후 아메리칸 항공 애드미럴 클럽(American Airlines Admirals Club)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2018년 12월에 문을 연 이스턴 콘코스과 마찬가지로, 신규 콘코스는 고층 보행자 다리를 통해 터미널 B 도착장과 출발장으로 연결됩니다. 이중 보행자 스카이웨이는 전국의 주요 공항에서 첫 번째로 도입되었습니다.

2018년 12월에 문을 연 동부 콘코스과 마찬가지로 웨스턴 콘코스는 이용객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현대적인 21세기형 공항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콘코스에는 55피트 높이의 천장과 전면 창문이 있어 충분한 자연광이 시설 내로 들어옵니다. 편의시설로는 어린이 놀이 공간, 조경과 좌석이 마련된 녹지 공간, 넓은 화장실, 가족 및 간호 화장실, 지정된 아메리칸 항공 서비스 데스크, 반려동물 휴식 공간 등이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뉴욕이라는 장소와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컨세션 및 예술 작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규 콘코스 건설의 일환으로, 두 번째 보행자 스카이브리지는 2021년 터미널 B 도착장과 출발장을 웨스턴 콘코스과 연결합니다. 콘코스의 두 번째 구역과 10개의 새로운 게이트가 2022년 개장합니다.

올 초여름 라구아디아 공항의 새로운 터미널 B 도착장 및 출발장이 대중에게 개방되었으며, 이것은 80억 달러 규모의 공항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지금까지 이뤄낸 가장 큰 이정표입니다. 850,000 평방피트, 4층 규모의 터미널 B 도착장 및 출발장은 여행객들에게 지역 컨세션, 넓고 현대적인 화장실, 뉴욕에서 영감을 받은 쇼핑가를 포함한 21세기 공항 경험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도착장 및 출발장에 공공 예술 기금(Public Art Fund)이 선정한 영구 공공 예술 설치물을 전시하여 승객에게 더욱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예술과 문화의 희망으로서 뉴욕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완공 후, 신규 터미널 B에는 도착장 및 출발장, 보행자 스카이브리지 2개, 완전하게 운영되는 콘코스 2개가 위치하며, 총 35개의 게이트에서 아메리칸(American), 사우스웨스트(Southwest), 유나이티드 항공(United Airlines), 에어 캐나다(Air Canada) 등이 운항합니다.

라구아디아 게이트웨이 파트너스의 **Stewart Steeves**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턴 콘코스 개장은 터미널 B의 전면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또 다른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승객을 위한 탁월한 서비스와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결합시킨 새로운 터미널 B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파트너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메리칸 항공 노스이스트 허브 앤 게이트웨이의 **Jim Moses**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턴 콘코스 1단계에서 운영을 시작하는 것은 아메리칸 항공에게 매우 중요한 이정표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LGA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세계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완전히 새로운 터미널 B 도착장 및 출발장, 콘코스는 커브사이드에서 게이트까지 승객의 여정을 한층 개선하고 변화시킵니다."

미국 스칸스카(**Skanska USA**)의 **Richard Kennedy** 사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칸스카 역사상 가장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라구아디아 공항 프로젝트가 이룩한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공을 축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뛰어난 안전성을 담보하며 일정보다 앞서 이러한 게이트를 개장한 것은 우리 팀, 하청업체 및 파트너의 부지런함과 지칠 줄 모르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는 전 세계 팬데믹 상황이라는 조건을 고려할 때 더욱 훌륭한 업적입니다."

Jeff Aubr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구아디아 공항의 재개발의 진척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삼류가 아닙니다. 이제는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Sharon Lee 자치구 대표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규 콘코스는 모든 편의시설을 갖춘 공항을 완성하여 전 세계 여행객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공항 경험을 제공하며 우리 자치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퀸즈 자치구는 일자리 창출, 장학금, 수학, 기술, 공학,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프로그램 등 이미 자치구에 혜택을 가져온 80억 달러 규모의 라구아디아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주신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예정보다 빠른 웨스턴 콘코스 개장은 일류 라구아디아 공항의 신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Francisco Moya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턴 콘코스 신규 개장은 라구아디아 공항이 세계적 수준의 교통 허브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적인 이정표입니다. 저는 공항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및 퀸즈 기반 사업체, 예술가의 발전에 집중하는 한편, 팬데믹 기간 동안 근로자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신 **Cuomo** 주지사와 항만청에 박수를 보냅니다."

청소

신규 콘코스를 포함한 터미널의 모든 구역은 가장 철저한 질병 예방 가장 높은 질병 통제 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청소 지침에 따라 청소를 진행합니다. 자주 접촉하는 표면의 청소팀은 현장에서 조끼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전체에 디지털

표지판이 있어 마스크 착용 의무 사항, 거리두기 관련 안내 및 자주 손을 씻으라는 알림 등 코로나19 관련 안전 조치를 게시합니다. TSA 직원은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승객 수하물을 취급할 때 장갑 사용 및 살균 등 엄격한 절차를 준수합니다. 앳 유어 게이트 앱(At Your Gate App)을 사용하여 언택트 방식으로 음식 주문 및 배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LGP와 항만청은 언택트 기술을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에 자외선 청소 기술을 테스트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계속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구아디아 재개발 계획

Cuomo 주지사는 5년 전인 2015년 같은 주에 라구아디아 공항의 종합 개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계획에 따라 건설된 완전히 새로운 LGA가 현대적인 고객 편의시설, 21세기 최첨단 건축물, 더 넓은 게이트 구역 및 연결된 터미널 시스템을 갖춘 세계적인 수준의 경험을 승객들에게 제공합니다. 8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4년 전인 2016년 착공하였으며 건설 자금의 2/3은 민간 자금 조달과 기존 여객 수수료를 통해 제공받았습니다.

2018년 2월 주차 공간 및 우버(Uber)와 리프트(Lyft) 및 임대 차량 전용층을 갖춘 새로운 터미널 B의 주차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주차장에는 총 3,00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터미널 B에 처음 18개의 신규 게이트와 첫 번째 콘코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2019년 10월 주지사는 공항 동쪽에 있는 델타 항공(Delta Air Lines)의 신규 터미널 C에 첫 번째 신규 콘코스와 7개의 신규 게이트를 건설했습니다. 지난 달 주지사는 터미널 B에 새로운 도착장과 출발장 개장을 발표했습니다. 터미널 C의 현대적 도착장과 출발장은 2022년에 개장하며, 3개의 추가 콘코스가 단계적으로 개장합니다.

또한 작년 10월 항만청 커미셔너 위원회(Board of Commissioners)는 새로운 에어트레인 라구아디아(AirTrain LGA) 개발 목적으로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독립적인 환경 검토 완료를 위해 보류 중이던 필요 자금 지출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핵심 지원을 받아 세계적 수준의 신규 라구아디아 공항이 철도로 연결되지 않는 유일한 주요 동부 해안(East Coast) 공항이 더 이상 철도 연결이 없는 유일한 주요 동부 공항으로 남지 않도록 에어트레인 라구아디아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 에어트레인 라구아디아는 공항을 윌레츠 포인트(Willets Point)의 새로운 역사와 연결시켜 여행객들이 차를 이용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교통 혼잡, 온실가스 배출 및 오염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입니다.

라구아디아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기간 중 전반적으로 1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경제 활동을 창출하며, 임금으로는 25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터미널 B 도착장 및 출국장 개장과 관련하여 라구아디아 공항이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과 체결한 계약 금액은 현재 14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의 MWBE 참여 목표인 30 퍼센트를 달성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완전히 새로운 LGA 비전에 따라, 항만청은 지역 선출직 공무원, 이해당사자 및 퀸즈 거주민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기업, 소수자 및 여성 소유 사업체(MWBE), 취준생, 학생 등이 라구아디아 공항 재개발 및 경제 성장의 일환으로 새로운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로 퀸즈에 본사를 둔 지역 기업이 5억 6,000만 달러 규모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 4월 Cuomo 주지사는 두 개의 지역사회 기반 단체와 협력하여 코로나에 새로운 공항 기회 위원회(Council for Airport Opportunity, CAO) 사무소를 개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AO는 퀸즈의 소수집단 및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주민에게 공항 관련 채용 및 일자리 소개를 제공합니다. 2019년 12월 라구아디아 재개발(LaGuardia Redevelopment) 사무소가 문을 열고 퀸즈의 소수자 및 취약 주민들에게 공항 관련 채용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뉴저지항만청은 퀸즈의 본 항공 기술 대학(Vaughn College of Aeronautics and Technology)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사회에서 본 대학에 진학한 학생 11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라구아디아 재개발 프로그램은 퀸즈 공공 도서관(Queens Public Library)과 협력하여 현재 중학교 2학년인 지역 학생들에게 과학, 기술, 공학,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에게 어울리는 21세기형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통합 공항은 기존 공항의 운영을 유지하면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이 완성되면 오래된 시설이 철거되어 공항이 수용 인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건설 중에도 라구아디아는 승객 규모에서 새로운 기록을 계속 세웠습니다. 지난 여름 터미널과 도로 작업이 정점에 이르렀을 시기가 공항 이용객이 가장 많은 12일 중 8일이었습니다. 2019년 라구아디아 이용객은 3,100만 명 이상이며, 이 수치는 2018년에는 이전의 기록적인 이용 승객수에 비해 3.1 퍼센트 증가한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